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	2018. 6. 14(목) / 총 2매(본문2)
담당 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 과장 김기대, 사무관 문기성 ☎ (044) 201-3823, 3832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TF	담당자	- 팀장 강욱, 사무관 이경수 ☎ (044) 201-4978, 4979
보도일시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력근로제 노사합의 사업장 ‘0’ … 7월 버스대란 현실화되나” 보도 관련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1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특례제외에 대비하여 지난 5월 31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을 고용노동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과 함께 발표하고,
-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한 근무형태 적용을 통한 ‘현 운행 수준 유지’와 ‘노동자 임금보전’ 등 노사정 합의 내용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8개 도(道) 교통국장 간담회(6.5일)를 실시하는 등 관찰관청인 지자체와 버스업계 대상으로 독려 중에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노사정 합의사항이 일선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는 8개 도의 주요 기초지자체 20여곳에 대하여 6월 중순까지 현장점검을 실시 중(6.11~)이며, 노사합의 진행상황 및 배차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현장점검 대상 8개 도 기초지자체

경기(남)	강원(서)	충북	충남	전북
평택, 안성	춘천, 원주	충주, 제천	천안, 공주	전주, 익산, 군산
전남	경남	경북	강원(동)	경기(북)
목포, 영광	창원, 진주	포항, 구미	속초, 강릉	고양, 파주

- 아울러, 6월 22일(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5.31일 노사정 선언문 및 부속 합의서 등의 이행상황 및 7.1일 대비 지자체별 대응계획 점검을 위한 17개 시·도 부단체장 참석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노선버스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보도내용 (6. 14, 서울경제) >

◆ 버스대란을 막기 위해 노사정이 탄력근로제 도입에 합의했으나, 노사 간 합의 완료된 사업장은 없으며, 이달 안에 노사합의가 성사되기는 어려울 전망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문기성 사무관(☎ 044-201-3832), 이경수 사무관(☎ 044-201-497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